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17일 목요일 음 3월 20일 (12월)

목요담론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고 따뜻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16°C, 낮 최고기온은 19-24°C로 예상된다. 다만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 피해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주	10%
20%	성산	20%
20%	고산	2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6/24°C
모레 흐리고 비 16/23°C

해뜰 06:01	달뜰 23:19
해진 19:06	달진 08:04
물때 만조 00:55 12:27	간조 07:25 19:04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월드뉴스

美 '하버드 vs 트럼프' 문화전쟁 격화

보조금 동결·면세 박탈 위협

미국의 번영과 국력을 뒷받침하는 하버드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하버드대가 미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금 지원 동결에 그치지 않고 '면세 지위'도 박탈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전날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수년간 22억 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6000만 달러(약 854억원) 규모의 계약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를 거론한 것이다.

14일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극렬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공개 거부한 지 하루 만이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하버드대에 지금한 보조금은 6억8600만 달러(약 9800억원)로, 이는 하버드대 총 후원 수입의 68%를 차지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미국의 성취를 대변하는 하버드의 상징성이 깔려 있다. 미국 사회 곳곳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좌파 엘리트의 성채를 무너뜨리겠다며 명문 대학 때리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대상인 셈이다.



이호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얼마 전 방영된 한 TV프로그램에서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신탁부동산을 취재해 보도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세사기가 처음 문제시된 이후 수만명의 피해자, 수조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사실 제3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해 관리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긴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조심해야

용한 방식이지만, 전세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다.

문제는 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기간 중 재산을 이전받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신탁한 일부 위탁자들은 임차인들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것을 악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챙긴 뒤 잡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기가 벌어진다. 뿐만 아니라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했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표기돼 있는데, 이 중 '갑구'를 보면 '신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갑구'에 적혀 있다면, 신탁기간 동안의 진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다.

보통은 임대인이 곧 집의 소유주인지 확인한 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만약 신탁등기가 돼 있다면 이렇게 계약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등기가 돼있다면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탁원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와 신탁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 종료의 사유 등을 포함한 서류다. 따

라서 신탁원부를 확인하면 누구에게 이 부동산을 임대해 줄 권한이 있는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신탁원부가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만 했지만, 관련법이 개정돼 올 1월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등기부에 계약 전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임차인의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개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받기를 추천한다.

열린마당

제1회 제주도장애인체육대회를 마치며



정재훈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제주도 장애인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 체육회의 숙원이었던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3일 '함께하는 제주, 스포츠로 나누는 감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8년간 '도민체전 장애인부'로 진행돼 온 대회가 올해 처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독립 개최돼 경기장마다 푸른 현수막이 물결치는 모습을 바라보니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선수들과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을 품고 기대를 기울였다.

'제1회'라는 말은 단지 숫자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뜻한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책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의 출발은 결국 제주 장애인체육의 성장이라는 공통된 결실로 귀결될 것이다.

올해 초 제2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제주 장애인체육은 한 걸음 한 걸음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며, 내년에는 16개 시도 선수들을 제주로 초청해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해 준 모든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제주 장애인체육의 더 큰 도약을 함께 기대해 주기를 바란다.

봄철 고사리 산행, 즐겁지만 안전이 우선



양광표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제주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고사리를 채취하러 다녀봤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구니 들고 친척, 이웃과 함께 오름을 걷다 보면 어느 새 바구니가 고사리로 가득 찬다. 이 시기 고사리 산행은 제주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흔한 풍경이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면 고사리 산행을 갔다가 조난당하거나 다쳤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오름이 높진 않아도 숲이 깊고, 고사리에 정신 팔리다 보면 내가 어디쯤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고사리 산행 중 위기상황에 처하면 당황하기 쉽다. 고사리 산행

은 말보단 행동, 특히 '준비된 고사리 산행'을 요구하기에 몇 가지 조심할 점을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고사리 산행은 혼자보다는 둘, 셋 함께 다니는 게 훨씬 안전하다. 다치거나 길을 잃었을 때도 쉽게 부담감이 덜해 서로 의지 되고 돌발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

이어 등산화를 신어 산행에 미끄러움을 예방하고, 긴 옷을 챙겨 봄철 진드기 등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한다. 또 반드시 핸드폰 배터리를 완충시키고, 손전등·호루라기·보조배터리·물·비상식량 등을 갖추길 바란다.

고사리 산행 시 노란색으로 된 숫자 표지판이 보일 것이다 바로 국가지정 번호판이다. 번호판은 현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준다. 이때문에 조난 시 그 번호를 119에 알려주거나 사진을 전송하면 구조대가 금방 찾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그곳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국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hallala.com> e-mail: hl@halla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나주농장

저희 농장은 2024년 행자묘목 부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장입니다. 최고의 묘목을 선점, 분류하여 판매 하겠습니다.

1년생 500원

2년생 800원

대표 번호 010-8739-0112
010-4150-7360

농협 계좌 352-0726-2187-03(김용길)

감귤묘목

고품질 고수익 그린향(유라실생)!!
대규모 하우스 단지 견학환영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천혜향 2년생 3년생 ▲오하라베니 4년생

▲하귤 5년생 ▲궁천 3년생

·황금향·레드향·한라봉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최고경력·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증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감귤 신품종 분양 2025년 최고 품종안내

만감류(기술원 보급종)
우리향, 달코미, 맷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아마나스, 황금향, 탐나는 봉, 카라향

온주
유라조생, 하례조생, 오하라베니(궁천변이자), 궁천, 고림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문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 품종 우량묘 포트묘

제 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品种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설향, 맷나봉, 레드스타, 하귤, 유라조생, 레몬.

신 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맷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원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